

4월 4일 '2026 금남로 차 없는 거리' 개막

11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참여형 탄소중립 거리 행사

광주 동구는 대표 시민참여 행사인 '2026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행사는 오는 4월 4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전일빌딩245부터 금남로공원까지 약 400m 구간을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행사다. 자동차 대신 사람의 발걸음이 거리를 채우는 시민 참여형 축제, 지난해에는 약 19만 명이 방문하고 3,000여 명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인증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슬로건은 '걷자잉(ing)'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협력형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공간은 ▲쉬자잉 존(도심 속 힐링 공간) ▲놀자잉 존(탄소중립 실천 체험 공간) ▲놀자잉 존(시민 자율공간) 등 3개 테

마로 구성된다. 또 탄소중립 실천을 일상으로 확산하기 위해 참여 보상 체계도 확대했다. 행사 당일 대중교통 이용 인증 사진을 제시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방문한 시민, 또는 1만 보 걷기를 달성한 시민에게 최초 참여 시 '대자보 여권'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후 지속 참여 시 화학별 온누리상품권 5천 원을 지급하며, 5월부터는 행사 당일뿐 아니라 월 1회 '행사 전일' 실천 인증까지 인정해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죄다 참여자에게는 총장축제 개막식 초청과 동명커피산책 카페 투어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나바다 장터와 1인 기업 홍보 공간, 대학생 동아리 부스도 마련된다. 잊지 않는 책을 가져오면 다른 책과 교환할 수 있는 '현재 바꿈소'도 운영되며, 빈백에 앉아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된다.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총장 라온페스타'와 연계한 지하상가 영수증 이벤트를 비롯해 '총장 K-스타 챌린지', '동구랑페이 이벤트' 등을 통해 행사 방문객의 발걸음이 인근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막일인 4월 4일 오후에는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매연과 탄소를 상징하는 회색 페버스를 시민들이 함께 밝은 색으로 채색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재탄생시키는 퍼포먼스를 통해 탄소중립의 의미를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남로 일대 차량이 통제된다. 동구는 시내버스 우회 노선 안내와 교통안내 요원 배치 등 교통 관리 대책을 통해 시민 불편



올해 첫 행사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사라며 "걷고 쉬며 즐기는 경험 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남구, '2026년 통일열차' 2,714km 달린다

올해 상·하반기 1·2회 운행, 다음 달부터 접수

22~25년까지 1만 918km 누비고 4,209명 탑승

광주 남구에서 출발하는 통일열차가 오는 4월 첫 운행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714km를 달린다. 올해에는 상반기 1회와 하반기 2회 운행하며, 상반기 탑승객 모집은 다음 달부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으로 받는다. ● 4년간 1만 918km 달려= 27일 남구에 따르면 통일열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3차례 운행됐다. 그동안 달린 누적 거리만 1만 918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22년에는 한반도 최북단에 있는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까지 왕복 824km를 달렸으며, 2023년에는 같은 장소를 총 4차례 방문하면서 3,296km를 달렸다. 또 2024년에는 파주시와 강원도 철원군을 각각 2차례씩 운행하면서 3,276km를 누볐다. 2025년에는 신규 노선 추가로 운행 거리가 크게 늘었다. 강원도 철원군 1차와 경기도 파주시 2차, 강원도 고성군 1차까지 3,522km를 운행했다. 올해에는 상반기 파주시와 하반기 강원도 철원군 및 고성군까지 달린다. ● 누적 탑승객 4,209명= 통일열차에 몸을 실은 주민은 지난 4년간 무려 4,209명에 이른다. 특히 해마다 모 든 좌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남겼는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남구 주민들의 갈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403명이 탑승했고, 2023년에는 1,307명이 통일열차에 올랐다. 또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1,268명과 1,231명이 파주와 철원, 고성에 남아 있는 철책과 북녘 산하의 경계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작은 발걸음을 남겼다. ● 2026년 탑승객 모집= 2026년 통일열차는 오는 4월에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을 방문하며, 오는 10월과 11월에는 강원도 철원군 및 고성군을 향해 떠난다. 탑승객 모집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파주행 통일열차 탑승객 모집 인원은 280명이다. 방문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탑승객은 추첨으로 뽑는다. 온라인은 오는 4월 8일 오전 9시부터 남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선착순 모집하며, 청소년과 동행하는 가족을 위해 별도 신청 코너도 운영한다. 이밖에 하반기 접수는 오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민주평화인권과(☎ 607-2691)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일 기자

광주광역시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단독·공동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시민이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올해 시비 1억2600만원을 투입해 약 84가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 단독·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부사업 연계 84가구에 설치비 보조... 14·15일 접수

광주시 보조금은 에너지원·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1가구당 최대 900만원을, 단독주택은 1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정부 보조금에 추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3kW(킬로와트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총 비용 454만원 중 315만원(국비 165만원·

시비 1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3kW를 설치하면 월 발전량은 약 315kWh로,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인 약 307kWh를 넘겨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이 가능하다. 이를 월 전기료로 환산하면 약 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의 접수는 4월14일 비태양광, 4월15일 태양광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 신청과 보조금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https://nr.energy.or.kr/home>)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에너지산업과(062-613-6233)로 문의하면 된다. /전광훈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미래 세대와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 해법을 찾고 실천할 수 있도록 '2026년도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대상별 맞춤형으로 구성해 ▲감탄서구 환경학교 ▲에코하우스 환경교육 ▲ESG 환경교육 ▲탄소중립 학교공헌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탄서구 환경학교'는 관내 초·중학교

서구, "기후위기 대응, 배움에서 실천으로"

어린이집·학교·지역사회 잇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운영

를 대상으로 '이해-체험-다짐'의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기후행동, 자원순환, 생태건강 등 주제별 교육과 함께 체험 활동을 병행해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일 계획이다. '에코하우스 환경교육'은 지역 단체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체험공간인 에코하

머 물과 땅의 소중함을 배우고 매일 기후행동 과제를 가정에서 실천하도록 돕는다. 특히 어린이집 인근 공원에서 생태계를 관찰하는 체험교육을 새롭게 도입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탄소중립 학교공헌'은 관내 초등학교에 전문 공연단체가 직접 방문해 창작 뮤지컬을 선보인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생활 속 탄소중립 행동 요령을 예술적 감성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박석우 기자

전남도, 인권 중심 공직문화 조성 나서

육성철 소장은 기자와 인권조사관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사업속 무의식적 차별 사례 ▲정책 설계 시 인권 침해 요소 ▲전남·광주 통합 시대 인권지향점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 인권 중심 공직문화 조성 나서

특히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사업 집행 방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 중심으로 짚었다. 전남도는 이날 인권감수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말하기 전 3초의 배려·정책 전 3

단계의 책임)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는 공직자가 업무 현장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직자의 정책과 행정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권 감수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염성호 기자

1면에서 이어짐

D후보는 농어촌·섬 지역과 전남 한 권역 현안 대응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젠더·청소년·장애인 의제의 확장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생활권리 정책에 대한 구체적 설계 없이 대형 개발 공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